

8/13/23

설교 제목: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2 장 11-22 절

(엡 2: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엡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엡 2: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엡 2: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절관주** 골 1:22, 엡 2:14

(엡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 2: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엡 2: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관주** 롬 8:26

(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 바로 전 1-10 절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던, 그리하여 본질 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오게 되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아니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우리는 교회에 나간 때부터 이 말을 수없이 들어온 터인지라 너무나도 익숙해져 별 생각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죽음에는 1 차적인 죽음인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2 차적인 죽음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이 세상에 태어나 육적인 죽음을 거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막힌 담이 허물어져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 1-10 절을 통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이고 개인적인 면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과의 수평적이고 공동체적인 면을 설명합니다.

구원 받은 자들은 단절되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또 다른 진리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문단을 '그러므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방인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엡 2: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켜 육체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또 유대인을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로, 이방인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창 17: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7: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창 17: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 17: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 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 17: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 17: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지라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언약의 표징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며 따라서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의 상징이었으며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과 할례를 이방인들이 좋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오히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로 칭하지 어니하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로 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손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이 단순히 '외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롬 2:25)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롬 2: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롬 2: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롬 2:28)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엡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첫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의 이유도 모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나라들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에 대해 수혜를 받았던 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로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넷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많은 신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긴 신들은 모두 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당연히 받아 마땅한 죄의 값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담의 선택으로 온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행복자라고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했던 것입니다.

(신 33: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특권은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과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신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방인이 된 모든 인류에게 두 번째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신 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멀리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온 자들은 유대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엡 2: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엡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엡 2: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엡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 2: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엡 2: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인해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원수됨과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과 당시 성전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 제사장을 비롯해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성소,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이방인의 한계 구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이 이상 넘어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분리와 배척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그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어떻게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건물에 비유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교회의 터를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터의 모퉁잇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갑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인종도 언어도 디르고 재능과 은사도 다른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릅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배려하고 격려하며 삽시다.

한 교회 한 교회를 연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